이젠 자동 타종 시대…'타종이' 아시나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군종교구, 6월 5일 '타종이' 공개
최원준 해군 대령 발명해 특허도
교구 귀속…편히 구매하도록 도와
법원 스님 불사에 관심 동참 당부

범종 인력 없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종을 울리는 타종 장치가 개발됐다. 독실한 불자인 발명자와 제작자는 특허까지 받은 타종 장치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귀속, 군불교 포교에 힘을 보태기로 해 훈훈함을 더한다.

조계종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6월 5일 서울 용산 호국 원광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성연결체를 이용한 자동 타종장치 '타종이'를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과 '타종이' 발명자 최원준 해군 대령, 제작자 김상봉 케이제이 대표 등이 참석해 '타종이' 개발과정과 향후 보급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타종이'는 계룡대 호국사에서 매일 새벽 정진을 하고 있는 최원준 해군 대령이 개발한 특허품이다. 최원준 대령은 서울대에서 조선해양공학으로 석사를,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조선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다. 저출산 시대, 출가자 감소로 범종을 보유한 전국 사찰에서 종을 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한 최 대령은 신심깊은 불자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 불교 중흥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계룡대 호국사 불자들의 새벽 기도 정진을 수월하게 돕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2021년, 자동 타종 기계 개발에 나섰고 1년 반 만에 발명 성과를 냈다. 최 대령은 이후 조선 설비와 기계 구동장치 제작 전문 기업인 케이제이에게 제작을 의뢰, 4개월 만에 타종 장치를 현실에서 구현해냈다.

'타종이'는 범종을 치는 도구인 당목 아래에 기계를 설치하고 연결된 고무가 기계의 왕복 운동으로 타종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회전체와 연결된 봉의 가속운동으로 메커니즘이 구현됐다. 기계와 고무 연결은 언제든 탈부착 가능해 필요시 수동 타종도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대령은 자녀가 가지고 놀던 블록 장난감을 이용해 '타종이' 구동 과정을 연구했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회전운동에서 직선 가속운동으로의 변환하는 원리를 이용, 구동 메커니즘 및 타종 기계 제작 가능성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고, 2022년 특허청에 등록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 보완을 거듭, 타종 강도와 데시벨 강약 조절도 가능하게 했다.


함안 보갑사에 설치된 '타종이'.

발명자 최원준 대령은 "오직 발원과 원력으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면서 "필요한 사찰에 보급돼 범종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불국정토의 세상이 이뤄지길 기원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타종이'는 군법당인 계룡대 호국사와 영동 남성사, 동해 지상사, 함안 보갑사에 설치된 상태다. 계룡대 호국사에 2년 전 설치된 '타종이'는 현재까지 고장 한 번 없이 가동 중이다.

제작자 김상봉 케이제이 대표는 "'타종이'를 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범종의 큰 울림이 국민들에게 치유의 소리뿐 아니라 가슴마다 피어나는 희망의 소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특허권을 군종교구에 귀속, 필요한 모든 사찰이 편하게 구매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타종이' 불사에 동참하는 불자는 범종불사와 군포교에 모두 마음을 내는 것으로, 이중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라며 '타종이' 불사에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어린이들에 재미있는 불교 "우리가 전합니다"

불레협, 73회 여름지도자강습
레크리에이션 · 율동 등 교육
"포교 일선에서 적극 활용"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방금 외친 말이 무색하게 진행자가 "4명"을 외치자 함께하던 짝을 빠르게 손절(?)하고, 또 다른 짝의 손을 잡는다. 숫자에 맞춰 짝을 짓는 '우리는 한가족' 게임에서다. 우승을 위해 열심히 새로운 짝을 찾아가다 어느새 게임에 집중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척박한 포교 현장에서 어린이·청소년에게 불교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을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장 스님, 불레협)는 6월 6일 서울 조계사 교육관 2층 강의실에서 '제73회 여름지도자강습회-마음愛 부처님'을 개최했다. 불레협은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매년 2회씩 강습회를 열고 있다. 이번 강습회에는 어린이·청소년 법회 지도자, 포교사, 지도법사, 템플스테이 담당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강습회 참가자들이 기차놀이를 하며 불교 레크레이션을 배우고 있다.

첫 번째는 강의는 '마음愛화합-레크리에이션 실내게임'. 강사로 나선 유상진 불레협 연구위원은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으로 기지개·안마 게임, 박수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을 소개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게임으로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기 위함이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리자 보다 활동적인 팀 게임으로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파트너를 찾는 게임, 기차놀이, 풍선 게임, 눈치 게임 후프 통과하기, 불풀공 농구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게임이 선보여졌다.

열심히 게임을 배운 강의 참가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활동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다. 광주 무각사에서 초·중·고부 법회를 지도하는 이광룡 씨는 "선생님이 우선 행복해야, 학생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강의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고, 또 부처님 법에 스며들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화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보조하고 있는 김지원 씨도 "지인의 소개로 오늘 강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오늘 배운 게임들은 곧 있을 여름불교학교에서 아이들과 다 함께 시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동국대 WISE캠 불교대학 '부르나' 창립

6월 5일 정각원서 창립법회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부르나'가 창립됐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6월 5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교문화대학 166명의 학생은 청년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것을 서원했다.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부르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르고, 지속적인 불법을 전파한다는 의미로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권태환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부르나' 회장은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이어나가는 청년불자로서 푸르른 모습을 지켜갈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불교 동아리를 지도할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위촉식도 진행됐다. 지도법사에는 유진 스님(불교문화대학 학장), 지도교수에는 불교문화대학 불교학부 혜명 스님, 김영진 교수, 석길암 교수, 명상심리학과 안양규 교수, 범우 스님이 위촉됐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 '해남 대흥사 순례길' 개발

총 4개 코스…왕복 2~3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최근 '해남 대흥사 호국과 다도의 길' 순례길을 개발·발표했다. '해남 대흥사 호국과 다도의 길'은 제22교구 본사이자 호국불교의 상징인 대흥사와 두륜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순례길이다.

코스는 △대흥사 쉼터에서 시작해 '봄이 오랫동안 머물렀다 간다'는 뜻의 장춘숲길을 걸을 수 있는 길(1코스) △서산대사의 발자취를 따라 대웅보전, 삼층석탑, 천불전, 호국대전, 성보박물관을 둘러보는 길(2코스) △국보 마애여래좌상의 숨결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북미륵암 길(3코스)△다도의 성지 일지암으로 가는 길(4코스) 등 4개로 구성됐다. 1코스는 5.1km, 2코스는 2km, 3코스와 4코스는 3km 구간으로 왕복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포교원에서 개발한 순례길 안내자료는 조계종 홈페이지-포교-포교자료-법회와설법-문서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여름엔 서핑 템플…힙한 불교 즐기자"

낙산사 템플스테이 · 서피비치
업무협약…6월 10일부터 예약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연수원장 선일 스님)과 서피비치(대표 박준규)는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 여름시즌 서핑템플스테이를 개최키로 했다.

서핑템플스테이는 낙산사가 진행하는 2박 3일 체험형 템플스테이에 접목된 서핑 프로그램이다. 7월과 8월 총 12차에 걸쳐 진행된다. 서핑뿐 아니라 낙산사 경내 홍련암 앞에서 바다를 마주하고 진행하는 '파도명상',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한 '소리명상', 바다에서 진행하는 '모닝 요가', 낙산사 탐방을 통한 역사와 문화해설, 요가와 절을 접목한 '요가형 108배', 불교에 관해 묻는 '스님한테 물어봐-즉문즉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낙산사템플스테이 홈페이지(naksansa.templestay.com/)서 예약가능. 선착순 60명. 김내영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